

#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팡파르'

### 전 세계 발효식품 한자리에 모아 전시·교류... 올해 20개국 361개 업체 참여

제1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0일 개막식을 열고 닷새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 세계의 발효식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올해는 20개국 361개 업체가 참여한다.

엑스포에서는 된장과 고추장 김치, 젓갈 등 한국 전통발효식품과 발사믹

식초, 올리브오일을 비롯해 맥주, 치즈, 와인, 노니주스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대한민국 식품명인(62명)의 전통식품 홍보관과 외식업계 식재료 산지페어, 발효토크콘서트, 전북도 농생명 식품산업을 이끌 우수인재의 성공취업을 위한 식품산업 취업박람회 등도 열린다.

또 한국인의 음식습성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의 시민강좌 등 다양한 특별기획전도 진행된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의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10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기습기살균제 사태이후 안전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옥시 사태이후 안전지향 소비트렌드 부상

### 섬유유연제, 표백제 등 매출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52% 하락

10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기습기살균제 사태이후 안전을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화학제품 사용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화학제품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케미'족도 대거 탄생했다.

가격이나 브랜드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단지 안전한 제품이라는 우선적으로 따져보는 소비행태가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제품들이 눈에 띈다. 표백제, 방향제 등 화학생활용품이 그 주인공. 특히 사태가 불거졌던 당시 관련 제품 전반의 매출은 급감했다.

롯데마트,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에서는 '기습기 살균제 수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5월의 경우 섬유유연제, 표백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52% 하

락했다. 최근에도 이같은 매출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10월 18일까지 세탁세제 등 화학제품의 판매는 전년 대비 대부분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천연재료로 만든 세제 등의 판매는 최대 55%까지 증가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유해제품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선 사례는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점이다.

이들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목록을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포스팅하고, 다른 소비자들이 실수로 이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알린다.

불매도 권유한다. 이들은 다수의 동참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지 기업들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처럼 최근 변화된 소비 형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

한 제품이라고 할 지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들은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최근 옥시 사태가 전반적인 소비트렌드를 변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무해제품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윤리경영도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웰빙, 친환경, 로하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던 가운데 옥시 사태가 터졌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안전 여부를 좀 더 예민하게 따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불량 제품을 팔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덮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윤리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25억 4,7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풀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 현대차전주공장, 전통시장 활성화나서

### 직원들 성과급, 시장상품권 25억원으로 지급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이 극심한 경기 불황과 대형마트 영향 등으로 판매고를 겪고 있는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25억 4,7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풀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한다는 목표 아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2016년 경영성과급 일부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회사가 이번에 지급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규모는 총 25억 4,700만원이다. 직원 대다수가 전북지역 출신이거나 이 지역에 가정 등 생활연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북지역 전통시장에서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극심한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지난 추석 명절에도 손님이 많지 않아 판매고에 시달렸었는데, 현대자동차가 기대 못했던 큰 선물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 시내 한 전통시장 상인은 "명절 때나 무슨 때면 전통시장을 애용하며 너도 나도 말들은 참 많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상품권을 풀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별로 못 봤다"며 "현대자동차를 본받아 좀 더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다"고 기뻐했다. /원주=이종복기자

## 농어촌공 동진지사 '내고향 물해설가' 초청 만경초 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인수)는 지난 19일 김제시 관내 만경초등학교에서 내고향 물해설가인 성치문차장(전주완주임실지사)을 초청하여 만경초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 농업용수의 역할, 수질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로 학생들은 "물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수질보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님들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인 학생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고 이에 대해 공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인수 동진지사는 "앞으로도 저러나 는 꿈나무들에게 내고향의 물 이야기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고 모든 지역사회 및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물을 아끼고 보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농어촌공 부안지사, 삼남중에

### '내고향 물 설명회' 가져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는 지난 19일 부안읍 삼남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고향 물 이야기를 주제로 물해설 전문가 성치문 강사를 모시고 내고향의 소중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성치문강사는 학생들과 함께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통해 우리가 부족함 없이 마음껏 사용하는 물의 소중함과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부안지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 및 교육 등을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물인 저수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마을의 문화와 역사 등을 활용하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내고향 물해설가를 양성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안=이복수 기자

## 전북은행 '사회복지사 힐링 Day' 개최

### 5600여명에 재충전 기회부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주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지난 19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휴식이 필요해!', 제1회 사회복지사 힐링 Day'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사 5,600여명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사 5,600여명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힐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임용택 전북은행장

의 "전북은행의 사회공헌 방향성,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전주', 여에스터 의학박사의 '직장인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등 명사특강 및 공감 토크쇼, 밴드 노타나무의 미니 힐링콘서트, 사회복지사들의 꿈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기념 퍼포먼스 등 참여자들이 함께하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행복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